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연중 제23주일



미워도 다시 한 번?

어느 회사든, 종교든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는 그 회사(종교)만의 장점과 혜택, 특전 등을 먼저 광고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거기로 가고자 할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사람들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부정적인 것을 제시하십니다.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라는 조건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당신께 오려는 사람들, 다시 말해 당신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가족이나 친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미워한다’는 용어는 비교급이 없는 히브리어 표현이기에 이 말은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를 심지어 자기 목숨을 하느님보다 더 사랑할 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미워하라는 이 말씀은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적대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하느님을 첫 자리에 놓고 흠숭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이중계명을 살피 분명 하느님을 다른 것보다 우선시해야 당신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의 이야기는 당신을 따르는 데서 오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영세 전에 나뉘는 계산을 통해서 신앙을 갖는 것이 훨씬 큰 이익(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확신했기에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잠시 지나갈 것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한 투자! 이것이 우리의 결정이었습시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결정에 대한 확신은 점점 줄어들고 세상의 것에 더 미련을 두므로써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 놓고 마치는 못하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원히 이익이 되는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 위에 오직 예수님을 두어야만 합니다. 그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취미생활도, 친구도, 돈 버는 일도 나아가서는 코로나라는 병 핑계도 결코 그분 앞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버리고 온 것들에 대한 미련으로 우리가 얻게 될 그 영원한 것들에 대한 희망을 꺾어버리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 자신만을 부둥켜안은 채로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었던 것은 아닐까요? 제자됨을 위해 내가 짊어져야 했을 그 십자가는 내 인생 어디쯤 버려져 있을까요?



김화석 도미니코 신부 | 장승포본당 주임

주일 진례

제 1 독 서	지혜 9,13-18
화 답 송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제 2 독 서	필레 9L-10,12-17
복 음	루카 14,25-33

제5대 교구장 퇴임 및 교구장 서리 취임 미사



제5대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의 퇴임과 교구장 서리 신은근 바오로 신부의 취임 미사가 8월 29일 주교좌 양덕동성당에서 총대리 최봉원 야고보 신부의 주례로 거행되었다.

이날 미사는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간소하게 진행되어 사제평의원 신부들이 참석하여 함께 미사를 봉헌하였다.

‘명례성지’ 순교자 성월 행사 안내

9월 순교자 성월을 맞이하여 명례성지에서 수요특강과 순교자의 밤 행사를 준비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을 위하여 22:00까지 야간 성지를 개방합니다.

명례성지와 함께 순교자 성월을 의미 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행사 당일 오전 11시 미사는 그대로 있습니다)

- 9월 14일(수) 19:30~21:00 수요특강(강사: 이제민 신부), 저녁미사(신석복성당)
- 9월 23일(금) 19:30~21:30 순교자의 밤(강사: 신은근 신부), 저녁미사(야외미사)
- 9월 28일(수) 19:30~21:00 수요특강(강사: 최진우 신부), 저녁미사(신석복성당)
- 9월 한 달 22:00까지 야간 성지 개방(야외 조명 점등)



약(藥)도 되고 독(毒)이 되는 말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이성(理性)적인 능력으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을 하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해야 한다. 말을 하지 못하면 고통스럽고, 또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말은 꼭 필요한 것이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기도 하다.

말은 소리와 다르다.

소리는 단순한 음(音)이지만, 말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준다. 한자로 ‘말한다’라는 語(어)는 말을 뜻하는 言(언)과 나를 뜻하는 吾(오)를 합친 글자이다. 그것은 말이 나를 드러낸다는 의미다. 즉 말을 통해 그 사람의 됄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그에게 말을 시켜 보면 된다고 했다. 공공기관에서 신입 사원을 뽑을 때 면접을 중요시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대인관계에서도 말이 많은 사람은 왠지 가볍게 보인다. 그러나 과묵하면서도 이치에 맞는 말을 하면 그 사람에게 신뢰가 간다.

말에는 힘이 있다.

우리는 말로써 상대방을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한다. 심지어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집회 28,17-18에서 “매에 맞으면 자국이 남지만, 혀에 맞으면 뼈가 부러진다. 많은 이들이 칼날에 쓰러지지만, 혀 때문에 쓰러진 이들보다는 적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칼이나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혀끝에 희생된 사람이 더 많다고 한다. ‘왕따’를 당해 고통을 겪는 것도 말 때문이 아닌가? 예수님은 마태 7,1-2에서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렇게 해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남을 심판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하느님께서 하실 일이니, 우리는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거짓말도 잘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또 학교에서는 선생들로부터 거짓말을 처음 접하면서 배운다. 그렇게 자란 어린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거짓말을 많이 한다. 그러다 보니 한국인은 세계인들에게 아직도 거짓말 잘하는 민족으로 인식돼 있다.

그리고 우리는 욕(辱)도 참 잘한다.

칼끝보다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가혹한 욕이며 독설(毒舌)이다. 한국인들의 대화 속에 욕이 많이 등장한다. 특히 청소년들은 말을 하면서 50% 이상 욕을 한다고 하는데, 참 부끄러운 일이다.

한때 미국 미네소타(Minnesota) 주립 대학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퍼진 세 가지 추방돼야 할 말이 있었다. 그것은 “That's not my job.”, “I don't care.”, “That's your problem.”이었다. 이 말들은 바로 이기주의, 개인주의, 방임주의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또 영국 사람들이 꼭 해야 할 세 가지 말이 있었다. “I am sorry.”, “Thank you.”, “Please.”였다. 이러한 말을 자주 쓴다면 친절하고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적극적으로 권장한 것이었다.

우리가 거짓말과 욕 잘하는 민족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직하고 고운 말 잘하는 민족으로 살아갈 것인가? 당연히 정직하게, 또 욕 안 하는 민족으로 살아가야 한다. 생각은 많이 하고, 말은 적게 하며, 행동은 빨리하라고 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말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은 독이 아니라 약이 될 것이다.



최봉원 야고보 신부(교구 총대리)

무지와 두려움을 넘어

김용태 마태오 신부/ 대전교구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북한사람을 떠올릴 때에 두려움이 앞서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볼 수도 만날 수도 없고 혹시 우연히 스치기라도 했다가는 꿈쩍없이 간첩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예전에야 북한사람이란 늘 어둠 속의 귀신처럼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요즘처럼 탈북민과 함께 살아가고 북한관광을 이야기하며 북한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시대에 북한사람은 우리와 똑같이 피와 살을 가진 보통 사람이다.

눈에 보이면 무섭지 않다. 머리카락을 풀어 해친 소복 차림의 처녀귀신을 백주 대낮에 저잣거리에서 마주한다면 무서울까? 무서움보다는 궁금함과 함께 불쌍한 마음이 더 들 것 같다. ‘대체 왜 저러고 있을까?’ ‘무슨 일을 당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예전에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을 때 난생처음 북한에 다녀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거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라는 것이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북한의 젊은이들을 보고는 ‘다 자식 같고 손주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십 년간 쌓여 온 두려움이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이처럼 눈에 훤히 보일 때보다는 오히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무섭다. 희미한 가로등 너머 어두운 골목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저 어둠 속에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기에 더욱 두려운 것처럼 말이다. 지난 70여 년간의 북한이 우리에게 그런 곳이었다.

독재 권력의 공포정치는 이런 식의 두려움을 주요 통치수단으로 활용한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데서 오는 두려움! 그래서 공포정치는 우민정치와 통한다. 국민들의 눈과 귀, 심지어는 생각까지 통제하여 아무것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알 수도 없게 만든다. 그리고는 이렇게 속삭인다. “알면 다쳐!” 공포정치를 자행하는 이들의 이미지가 곧잘 검은 양복에 검은 선글라스를 낀 기관원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저 검은 선글라스 너머의 눈동자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없듯이 캄캄한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어떤 일을 벌이고 저지르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권력자들의 존재란 늘 섬뜩한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보면 그동안 우리가 진짜로 두려웠던 것은 북한 사람들이 아니라 반공과 적개심을 강요하던 이 나라의 권력자들이었다. 북한의 인민무력부가 아니라 남한의 안기부가 더 무서웠던 거다.

물론 ‘초전박살’ ‘멸공’이란 말이 나라 구석구석에 도배되었을 때에 비하면 지금은 세상 참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아직도 공포를 조장하는 정치행태는 사회 곳곳에 만연하다. 이 시대, 언론인과 법조인이 야합하여 진실과 정의를 가리고 불안과 두려움을 키워 국민들을 구속하고 지배하려 드는 모습을 보라! 우리가 더 좋은 나라,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두려움과 속박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모로 더 잘 보고 더 잘 알아야 한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의 바다는 두려움을 주지만 우리가 그 바닷길을 알게 되면 두려움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널 수 있다. 보이면 무섭지 않다. 알면 겁잡하지 않다. 그래서 두려움과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추고 밝히고 보고 배우고 알아야 한다. “알아야 면장 한다.”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면장’이란 행정직을 뜻하는 ‘면장面長’이 아니라 ‘면면장免面牆’의 줄임말이다. 즉 “알아야 면면장免面牆 한다.”가 본말인데 ‘무릇 사람은 배우고 알아야만 담벼락을 마주 보는 듯한 답답한 지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논어에 나오는 공자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사실 배우고 깨우치지 않으면 담벼락 마주 보는 답답함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담장 너머의 세상을 두려워하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물 안의 개구리만 담장 안에만 갇혀 살면서 담장 너머를 향해 가는 이들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공포정치와 우민정치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속 좁고 수구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이유다. ‘보수’를 참칭하는 ‘수구’세력은 그런 의미에서 많이 무식하고 비겁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배우고 아는 일을 게을리할 수 있으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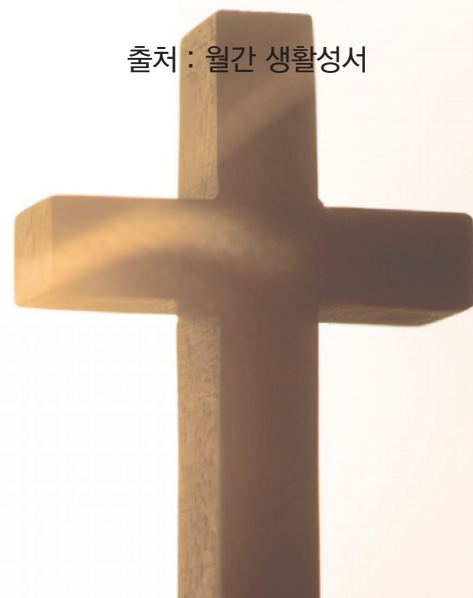
그런데 잘 보고 깨우쳐 알기 위해서는 또 누군가는 잘 비추고 밝히어 드러내 주어야만 한다. 이 시대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바르게 식별하여 사람들에게 알리고, 묻히고 감추어진 진실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권력자들의 부정과 비위에 대해서 폭로하고 고발하는 행위들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모두 어둠에 가려진 것들을 비추고 밝히어 사람들이 보고 알아 두려움과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노력들이다.

그리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도 이와 다르지 않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요한 8,12)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밑에 놓지 않는다. 등경 위에 놓아 들어오는 이들이 빛을 보게 한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져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루카 8,16-17) “일어나 비추어라”(이사 60,1)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마태 5,14)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사실은 ‘세상을 비추는 내 안의 빛’이란 다름 아닌 ‘빛이신 주님’이라는 사실이다. 간혹 그리스도인이면서 심지어는 사제이면서 어둠의 세력을 지지하는 황당한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들이 그러는 이유가 뭘겠는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아닌지 살펴보아라.”(루카 11,35)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마태 6,23)

결국 세상을 비추고 밝힘은 ‘행위’가 아닌 ‘존재’의 문제다. 내 존재가 어둠이 아닌 빛으로, 거짓이 아닌 참됨으로,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즉 우리의 주님으로 온전히 채워져야만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또한 주님의 은총 없이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옛날 예리코의 소경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주님, 저희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자, 그들이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마태 20,33.34)

출처 : 월간 생활성서



교구 사목 방문

일시: 9월 6일(화)
본당: 영산/ 칠원

교구/본당

성직자 모역 성모

일시: 9월 5일(월)
장소: 고성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모역

31차 청년 성령 세미나

일시: 9월 16일(금) 14:00~18일(주일) 16: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청년
신청: 9월 7일(수)까지/
<http://naver.me/xS84o51b>로 신청
문의: 010-9113-7062, 010-8864-7067

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나오시거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허명준(요한나)
담당판사: 김정훈(도미니코) 신부
장소: 교구 법원
일시: 9월 6일(화)까지
문의: 교구 법원 055-249-7111

위원회/기관/단체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9월 기도모임

일시: 9월 5일(월)
14:00-미사, 특강(정운호 신부)/ 15:10-회의
장소: 사파동성당
대상: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교구 봉사자
문의: 회장 010-3903-8234

기타

대구가톨릭대학교 2023 수시모집

·전국 최대 규모 가톨릭계 종합대학
·수시 최초 합격자 전원 장학금 지급
- 인문 100만 원, 자연·예체능 150만 원
·2,556명 수용, 지역 최고 수준 기숙사
문의: 053-850-2580(입학상담)

가톨릭꽃동네대학교 2023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가톨릭 보건·복지 특성화 대학
·대학 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 지원 대학 선정
·취업률 76.5% 충북권 1위
·신입생 전원 꽃대장학금 지급
·신입생 기숙사 100% 입사 가능
모집: 간호학과,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
원서접수: 9월 13일(화)~17일(토)
문의: 043-270-0100~0102

제주 성이시들 자연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섬'과 재충전의 순례
일시: 9월 15일~17일/9월 19일~21일/9월 25일~27일/
10월 11일~13일/ 10월 20일~22일/ 10월 24일
~26일/ 11월 1일~3일/ 11월 11일~13일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단체 구반장
문의: 02-773-1455, 064-796-4182

제주 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피정
자연순례: 9월 20일~22일/ 10월 18일~20일/
10월 24일~26일
성지순례(추자도): 9월 25일~28일/ 11월 5일~8일
문의: 02-773-1463, 064-756-6009

제32회 한국 가톨릭 매스컴대상 공모

부문: 1)신문, 출판/ 2)영화, TV/ 3)라디오,

인터넷/ 4)교구, 수도회 출판작
대상: 2021년 10월 16일~2022년 10월 15일 사이
발표된 작품
접수: 10월 15일(토)까지 우편,
메일(mscm@cbck.kr) 접수
문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홍보위원회
02-460-7626/ <http://www.cbck.or.kr> 참조

파랑포안나의집(장기요양시설)에서 입소어르신을 모집합니다.

대상: 장기요양 1~3시설등급(여자어르신)
주소: 거제시 팔랑포2길52(옥포동)
문의: 055-687-4890, 010-8526-6079

2023 리스본 세계청년대회(WYD)

1984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의해서 로마에서
시작된 세계청년대회(WYD)는 전세계 150개국 이상의
가톨릭 청년들이 모여 신앙을 공유하고 연대하는 자리
입니다. 이번 세계청년대회에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과 함께 하나의 신앙을 기쁘
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정: 2023년 7월 22일(토)~8월 9일(수) 18박 19일
순례(스페인 일대), 교구대회(포르투갈 일대),
본대회(포르투갈 리스본)
지원자격: 1988~2004년생, 6차의 사전교육에 참가
할 수 있는 자, 20명 선발
예상참가비: 450~500만 원(최대 100만 원 교구 보조)
신청: 교구 청소년국 홈페이지(<http://youth.cathms.kr>), 9월 25일(주일)까지
선발일정: 10월 15일(토) 14:00 교구청-설명회 및 면담
10월 24일(월)-참가자 확정 개별 통보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카카오톡채널 '청년부'
▶2023 WYD 공식 홈페이지: www.lisboa2023.org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구	9월 5일(월) 19:00	중앙동성당	계속되어야 하는 소명	마진우 요셉 신부(대구대교구)		010-5072-5612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원하는날(미리연락)	원하는 곳	010-9353-1773(우 노아 수녀)	대상: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여성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상시	원하는 곳	010-6608-3217(김종관 미카엘 신부)	ofmkvocation@gmail.com

■제주·추자도 순례 모집 주중·주말 매주 출발 ■한국성지 167 완주 모집 9. 20.(화)~23.(금) 청주·안동교구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아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제주 3박 4일·전국 2박 3일 성지순례 제주 7곳 각 지역 항공출발 35만원 전국 167곳 수원,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전주, 마산 2박 3일-28만원 마르코 투어 010-4239-1929	동우 건축 인테리어 아파트, 주택 리모델링 및 화장실 시공 정직한 시공 / 가성비 뛰어난 시공 비용 일단 부담 없이 견적을 받아 보십시오 강동주(세례자 요한) 010.5053.5393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파크골프채 최고의 골프기능 특별할인 기회 NAVER에서 아리랑파크 골프채로 검색 선택 후 010-3599-0745로 연락주세요. 파크골프 스포츠 대표 김요셉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영로 489(팔용동) 구자룡 할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가톨릭신문투어 ▶10/15~27 터키, 그리스 510만 원 ▶11/1~12 동부유럽 385만 원 ▶11/1~12 성모발현지 375만 원 ▶11/15~25 발칸반도(메주고레) 365만 원 ▶12/2~10 이스라엘 370만 원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1577-5006 www.cttour.org
트래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41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			



터널을 나오며

유희선 가타리나 시인/ 가톨릭문인회

예술인들을 위한 신중년 사업에 참여하면서 출근과 퇴근이 생겼다. 전업주부로만 살던 내게 처음 직장이 생긴 것도, 출근길과 퇴근길이 생긴 것도 신선했다. 사회에서 일컫는 '신중년' 그러니까 만 50세에서 70세 사이의 카테고리 안에 속한다는 것도 새삼 흥미로웠다. 도시문화 디자인이라는 타이틀로 참여한 기관은 진해 웅동 지역에 있는 문학관이다. 인근의 산업단지와 거대 물류센터 개발로 조용하던 마을은 쑥대밭이 되어버렸다. 부산 신항으로 가는 도로 위의 거대 트레일러의 행렬은 진풍경이 아닐 수 없다.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가 되어버린 지역 특성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출근길을 단축하는 수혜를 누린다. 처음에는 여러 루트를 시도했었지만, 지금의 노선을 정한 다음부터는 같은 길로 다닌다. 바로 진해 터널을 통과하는 길이다. 마침 그 터널은 정식 개통이 되기 전이어서 구간 단속 80km는 눈속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차량이 뜰해 대략 7km 구간을 혼자 달릴 때도 있었다. 속도를 의식하지 않고 악셀레이터를 밟아보는 체험은 평생 처음이었다.

속도는 몰입과 희열을 주는 것이 분명하다. 그 맛을 처음 알게 된다는 것이 신선한 충격이었다. 세상은 끊임 없이 도로를 만들고 점점 더 긴 터널을 만들고, 성능 좋은 자동차를 만들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법규를 만들고 온통 카메라로 통제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개개인보다 세상이 더욱더 속도를 갈망하고 갈구한다. 속도를 숭상하는 세상에서 범칙금을 피해 요령껏 운전하도록 길들이는 일상의 모습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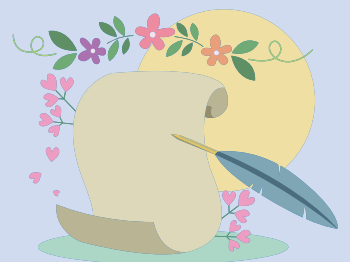
소소한 위반은 전혀 가책받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심리는 무엇일까? 더 나아가 들키지 않는 수많은 법규 위반들은 얼마나 많은 것일까? 비록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느님과 양심을 거역하는 개개인의 비밀스런 죄는 또한 얼마나 많을까? 발각되지 않고,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살아가는 우리의 초상은 꽤 많은 것일까? 세계가, 한 사회가 갈망하는 속도와 전형화된 성공의 모습은 획일화되어간다. 뒤처지기 시작하면 도저히 따라잡기 힘들다.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위험한 폭주를 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맛의 쾌감을 느껴왔을지도 모른다. 또는 실행해 보지 못한 잠재력의 최고치를 시험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다.

길을 만들고 터널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 가속에 무감각해지는 지점을, 끝내 사고 다발 지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꿰뚫고 있다. 터널은 그 상황이 더욱 명징하게 압축된 곳이다. 진입 후 어느 지점부터는 온갖 종류의 형형색색 네온이 총동원되어 번쩍거린다. 그것도 모자라 거칠고 다급하게 사이렌이 울린다. 그토록 지나치게 친절할 모습이나, 꼼짝없는 범칙금 제도밖에는 인간을 다루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갑갑하다. 복잡하게 얽힌 세상에서 복잡한 감정을 가지며 살아가는 개개인들이 법의 눈을 피해 숨을 곳을 찾는 이유일 것만 같다.

이제 더는 터널 속에서 예전에 맛보았던 속도로 달릴 수 없게 되었다. 지금은 구간속도에 집중하느라 뜻밖의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더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영원 같은 묘한 감정을 느껴보았다. 그리고 종교의 한 단면을 얼핏 본 것 같기도 하다. 가깝게 느끼는 계명과 멀게만 느껴지는 구원이란 구간을 통과하는 긴 여정의 의미를 생각한다. 터널 속을 달리듯 시간은 오로지 한 방향이다. 당근과 채찍 그 너머 터널 끝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완성이란 어떤 것일까? 성숙한 신앙생활에 대해, 그 모든 것이 빛과 자유임을 알기까지.....

제16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홍보국(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 **마 감:** 9월 30일(금)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E-mail,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례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겹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응모'라고 명기할 것
워드프로세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순교의 영성으로 사는 삶

나자렛 예수 수녀회

외작 교우를 위한 예비자 교리 교육 과정 중 성월 교리 기간이 되었습니다. 성월 교리를 설명하며 특히, 9월 순교자 성월은 순교자들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하느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피의 순교로 증거한 사랑을 기억하는 달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순교자 성월은 신앙의 밑거름이 되신 순교자들의 신앙과 삶을 본받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특별히 순교 성인들의 모범과 순교 정신을 기리고, 피를 흘리며 신앙을 지키는 순교는 아닐지라도 일상의 평범한 삶 안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각자의 삶 안에서 직면하게 되는 정보화의 물결, 이기주의와 세속주의의 물결, 생태환경의 위기) 안에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가정과 사회에서 하느님 눈으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바라보며 일상 안에서 작은 순교를 실천하는 '생활 속의 순교 영성의 삶'을 살아보도록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의 교리 기간이 끝나고 세례성사를 받은 날, 새 영세자들이 성가정을 이루어 살게 된 것에 대한 소감과 감사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에 한 형제님께서 '생활 안에서 순교 영성의 삶'을 산 것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싶다며 아주 작은 실천으로 본인이 받은 감사한 시간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30년 차 맞벌이 부부였던 형제님은 퇴직을 하시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매님의 섬세하지 못하거나 알뜰하지 못한 살림이 눈에 띄게 보였고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자매님이 형제님을 외작 교우 교리반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교리를 들으며 형제님은 '생활 속의 순교 영성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 자매님에게 느꼈던 불편한 부분, 즉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길 원했던 부분을 자매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님이 직접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매님이 식사를 준비할 때면 이리저리 어질러 놓은 양념통들을 보며 "이거 다 사용했으면 뚜껑을 닫아 넣어줄까?"라는 말과 함께 양념통들과 식재료들을 정리해 주었고, 세탁물도 종류별로 분류를 해서 세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자매님이 설거지를 할 때면 형제님은 집안 구석구석 널브러진 옷가지며 책들을 정돈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을 지내다 보니 가사 일이 끝없이 힘든 노동임을 알게 되었고 그간 자매님이 형제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핀잔을 주고 음소거로 무언의 불만을 표했던 자신의 언행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맞벌이를 했던 시기에도, 퇴직 후에도 늘 가정의 대소사를 자매님께만 맡기고 방관적 자세로 있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자매님께 미안하다는 말과 일상의 대화 안에서 "고마워", "수고했네"라는 감사의 언어를 자매님에게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왜 내게 그런 서운함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자매님이 형제님 손을 잡으며 "당신이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신앙생활 안에서 하느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만나게 되니 마음에 올라오는 서운함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성가정을 이루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신에게는 정말 큰 선물이다."라는 이야기로 형제님께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정말 아주 작은 집착의 포기이고 실천이었지만 삶 안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니 사랑과 평화의 은총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부부에게 모두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그곳에 함께한 모든 이의 마음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해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9월 순교자 성월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삶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순교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마음으로 '내 뜻'이 아닌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내가 가장 피하고 싶은 것들을 품어 안는 작은 길을 걷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이기심과 편리한 생활로 인해 생태·기후 위기에 처한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라는 소중한 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기적인 우리 자신의 마음과 눈을 예수님의 마음과 눈으로 변화시켜 생태 환경을 돌보고 우리 가족과 이웃을 돌보며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호하는 것, 또한 서로의 마음에 새 생명을 심어주며 하느님의 '선행'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작은 순교일 것입니다.

9월 순교자 성월!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자연을 아프게 하고, 함께하는 내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에 대하여 자신을 솔직하게 살펴보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은총에 응답하도록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심어주신 그 희망의 씨앗을 발견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작은 길을 감사와 사랑으로 걸으며 하느님의 '선행'을 우리 각자의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